

유조선 일부 통과... 호르무즈 낭보에 국제유가 하락

트럼프, 호위 지원 보도까지 겹쳐 브렌트유 100弗 아래로
일각선 "일시적 유가 하락... 공급 재개에도 회복 시간 걸려"
국내 주유소 기름값 꾸준히 내림세... 하루 L당 4.4원 뚝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부 선박의 통행이 재개되면서 16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하락했다. 이날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증가는 배럴당 100.21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2.8% 내렸다. 4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증가는 배럴당 93.50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5.3% 하락했다. 최근 며칠간 배럴당 100달러 이상을 유지하던 브렌트유가 하락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완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에너지 전문가 리터부시 앤드 어소시에이츠는 보고서에서 "일부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는 보도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해협 내 유조선 호위 지원 요청 소식이 전해지며 석유 시장에서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직전 거래일인 13일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2.7% 상승한 배럴당 103.14달러에 마감하며 증가 기준 2022년 7월 말 이후

약 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다만 유가 하락이 일시적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컨설팅업체 유라시아그룹은 보고서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배럴당 100달러는 더 이상 위험 시나리오가 아닌 기본 시나리오가 됐다"며 "4월 이후 공급이 일부 개선되더라도 재고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유가가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 연합체 구성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유가는 다시 변동세를 보였다. 17일(현지시간) 브렌트유는 2.45% 올라 배럴당 102.57달러, WTI는 2.51% 올라 95.85달러를 기록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석유 공급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이란산 원유를 실은 이란-중국-인도 유조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사실상 승인했다. 스톡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란의 원유 수송을 허용하고 있으며 몇 달 내 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이하로 떨어질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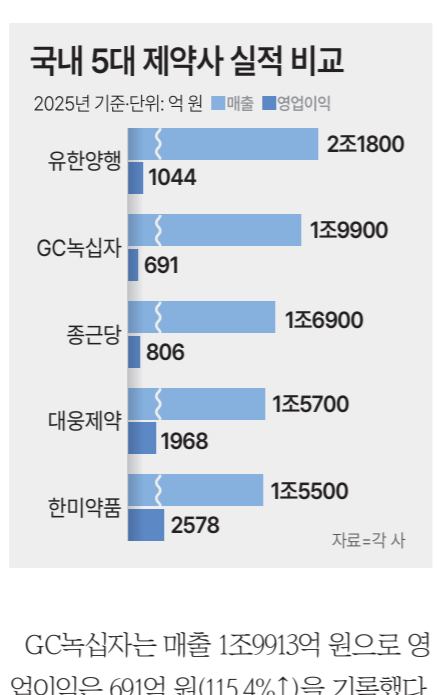
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국제유가 상승세와 관련해 "전쟁이 끝나면 유가는 매우 빠르게 하락할 것이며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로"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위한 지원을 재차 촉구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선박 보호를 위한 연합체 구성을 추진 중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완전히 구축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추가 참여를 요구했다. 한편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다섯째인 17일 전국 주유소 기름값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정보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829.6원으로 전보다 3.1원 하락했다. 경유 가격은 L당 1827.7원으로 4.1원 내렸다. 전국에서 기름값이 가장 비싼 서울 역시 하락세를 보였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854.7원으로 전보다 4.4원 내렸고, 경유 가격은 3.4원 하락한 L당 1844.3원으로 집계됐다. 김선민 기자 smkim@skyedaily.com

정보 유출 걱정 없는 'AI 데이터센터' 구축 신세계·美 리플렉션 AI, 소버린 AI 팩토리 건립 MOU

신세계그룹이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리플렉션 AI와 손잡고 국내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나선다. 이를 통해 AI를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국내 AI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신세계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리플렉션 AI와 '한국 소버린 AI 팩토리 건립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미사 라스킨 리플렉션 AI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으며, 하워드 러트니 미국 상무부 장관도 자리해 협력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사는 한국에 전력용량 250M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국내에 건립됐거나 계획 중인 AI 데이터센터를 넘어서는 최대 규모다. 사업은 단계적으로 전력용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대규모 센터 구축이 가능한 배경에는 핵심 장비인 GPU 확보가 있다. 리플렉션 AI는 해당 데이터센터에 들어갈 GPU를 엔비디아로부터 공급받을 예정이다. 리플렉션 AI는 지난해 기업 가치 약 80억 달러를 인정받으며 엔비디아 등으로부터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AI 기업으로, 안정적인 GPU 공급망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양사는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와 사용자 맞춤형 AI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풀스택(Full-Stack) AI 팩토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 정부와 기업이 데이터 유출 우려 없이 활용할 수 있는 AI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협력은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AI 수출 프로그램'을 통한 기술 협력의 대표 사례로도 의미가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함께 AI 서비스를 포함한 생태계를 동맹국 등에 확산하는 정책이다. 리플렉션 AI가 개발하는 '오픈 웨이트(Open-Weight) AI 모델'은 사용자가 모델 구조를 변경하고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데이터 주권 확보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는 평가다. 리플렉션 AI는 구글 딥마인드 출신인 라스킨 CEO와 알파고 개발 핵심 인력 중 한 명인 이오안니스 안톤글루 최고기술책임자(CTO)가 2024년 설립한 AI 기업이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5대 제약사 합산 매출 9조 원

지난해 상위 5대 제약사 합산 매출이 9조 원 가까이 진입했다. 매출 기준으로는 유한양행이 1위 영업이익의 1위는 한미약품이 가장 높았다. 17일 본지가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를 분석한 결과 유한양행-GC녹십자-종근당-대웅제약-한미약품의 2025년 연결기준 합산 매출은 8조9886억 원으로 집계됐다. 유한양행이 지난해 2조1866억 원으로 매출 1위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1044억 원이다. 이 회사는 전문의약품 처방 확대에 더해 폐암 신약 '렐라자'의 중국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 약 640억 원으로 이익이 늘어났다. 일회성 요인이 일부 포함됐지만 기술료 수입이 손익 개선에 기여했다.



한미약품, 영업이익률 16.7%
유한양행, 2.1조로 매출 1위

별도 부문별로는 혈액제제 매출이 4204억 원, 백신제제 2564억 원, 처방의약품 3777억 원, 소비자헬스케어 1904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처방의약품 부문에서 주력 제품인 헨터라제 매출이 3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끌었다. 종근당 매출은 1조6924억 원으로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19% 줄어 806억 원을 기록했다. 순이익은 전년보다 30.2% 줄어 778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이 줄어든 이유는 연구개발 비용 증가가 부담으로 작용했다. 해외 고수의 제품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도 한몫했다. 대웅제약은 '핵수클루'와 보틀리늄 독신 '나보타' 등 수출 비중이 높은 제품이 실적

Inhancer Plus[™] 관절영양제의 혁명

인한서 플러스

글루코사민 + 콘드로이틴 + MSM + 브로멜라인 + 레시틴

오프라인 전용 온라인 전용

관절 관리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